

마태 8:5~13절과 누가 7:1~10절 비교

—백부장이 왔는가, 그 벗들이 왔는가?—

길 성 남
(신학대학원 3년)

목 차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본론

1. 문제해결의 세가지 유형

1) 첫번째 유형: 백부장이 왔다.

Bultmann

Fitzmyer

2) 두번째 유형: 벗들이 왔다.

Morris

Gundry

3) 세번째 유형: 둘 다 왔다.

Geldenuys

2. 본문주석

III. 결론: 백부장이 왔는가, 그 벗들이 왔는가?

I. 서론

마태복음 8:5~13절과 누가복음 7:1~10절은 공관복음서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잠시만 살펴보아도 공관복음서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때로 세 복음서가 내용상으로 공통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자료의 내용과 순서, 그리고 언어와 표현 양식조차 같은 경우가 있다. 또 세 복음서 중에서 두 복음서에만 공통된 것들이 있다. 즉 마태와 마가, 누가와 마가, 또는 마태와 누가 사이에 공통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의 탄생기록과 족보의 경우이다. 마태와 누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배열을 달리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보도하기도 한다. 공관복음서의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소위 '공관복음서 문제'이다.¹⁾

마태 8:5~13과 누가 7:1~10절의 문제는 두 본문이 같은 사실을 취급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심각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두 본문은 똑같이 백부장의 종이 예수께 치유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에서는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나와서 호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벗들을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즉, 백부장 자신이 예수께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눅 7:7절에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는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마태 8:11~12절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의 본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문맥에서 발견된다. (눅13:28,29).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두 본문이 동일한 사실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서 그와같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가? 어느 본문이 본래의 것인가? 예수께 나온 사람은 백부장이었는가, 아니면 백부장의 벗들이었는가? 이러한 문제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개혁신주의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풀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현재의 상태로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추측 반 믿음 반의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두 본문 가운데 어느 한 본문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본문의 문제는 성경판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 나온 사람이 백부장인지 아니면 백부장의 벗들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두 본문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한다.

II. 본 론

1. 문제해결의 세가지 유형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1) W.G. Kümmel,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 by H.C. Kee, (Nashville: Abingdon, 1981), p. 42참조.

해결책들을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태의 본문이 본래의 것으로 누가가 개작을 한 것이다. 즉 백부장 본인이 예수께 직접 나왔다는 것이다.

둘째, 누가의 본문이 본래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으며 마태가 그 본문을 단축시켜서 기록한 것이다. 즉 벗들이 왔다는 것이다.

셋째, 백부장의 벗들이 먼저 왔고 그뒤에 백부장 자신도 예수님께 직접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자와 누가복음의 기자가 각각 백부장과 백부장의 벗들이 시차를 두고 함께 온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두 본문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상의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전에 미리 밝혀둘 것은 여기서 다루어지는 몇몇 학자들이 그 유형의 견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글이 몇가지의 제한된 자료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1) 첫번째 유형: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는 R. Bultmann, Joseph A. Fitzmyer 등이 있다.

Bultmann은 마 8:5~13의 기사를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막 7:24:31)와 연결시킨다.²⁾ 즉 두 기사를 같은 것의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간청하는 이방인이 슬기로운 답변으로 예수를 설복시켰다고 말한다. 두 경우 다 그 요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한 것으로 병든 아이를³⁾ 이적으로 고쳐 달라는 것이다. 두 경우 다 예수는 간청하는 자의 슬기로운 말에 놀라 고쳐줄 것을 허락하셨다. 또 두 경우 다 그 이적은 원거리 병고침이다. 볼트만은 이런 점에서 마 8:5~13의 기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와 같은 유형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는 이 기사의 출처를 Q자료로 보며 누가복음의 기사보다 마태복음의 기사가 본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

2) 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공관복음서 전승사,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46.

3) Bultmann은 마태복음의 ὁ παῖς (누가복음에서는 ο δούλος)를 '종'이 아니라 '아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문의 주석에서 다룰 것이다.

4) 여기서 Bultmann은 마태복음의 기사가 마가복음에 의존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 8:5~13절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의 변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마 15:21~28절에 그 기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Bultmann은 이본문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와 연결시키면서 마 8:7의 Ἐγὼ ἐλεῶν θεραπεύσω αὐτον. 을 의문문으로 생각한다. 즉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노한 거절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라서 누가가 예수님을 설복하는 역할을 장로들에게 맡겨서 나름대로의 논증을 취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볼트만이 마태의 기사를 구전(oral tradition)이나 원자료에 충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태가 원래 독립된 11, 12절의 주의 말씀을 부연하여 이 사화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서 그 강조점을 전위시켰다고 말한다.⁵⁾ 더 나아가서 이 기사 전체를 교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원거리 병고침의 역사성도 부정한다.

이렇게 볼 때 Bultmann에게 있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는지, 그 벗이 왔는지의 문제는 아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단지 그의 논증으로부터 추론할 때 그가 마태의 본문이 누가의 본문보다 Q자료를 더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므로 백부장이 온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의 본문을 교회의 산물로 생각하고 또 누가의 본문을 누가 자신의 판단과 의도에 의한 첨삭이요, 개작으로 이해한 볼트만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Joseph A. Fitzmyer는 두 본문에서 "Q"자료를 가려낸다. (마 8:5~6, 8~10, 13b, 눅 7:1b~2, 3a, 6e, 7b, 8~9, 10b).⁶⁾ 그러면서 그는 마태의 본문이 Q자료의 본래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백부장이 장로와 벗들을 보낸 것은 Q자료에 속해있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Q자료의 형태에 첨가한 누가의 저작(composition)으로 간주한다.⁷⁾ Q자료에 유대인 장로들과 벗들이 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기자가 그것을 생략해 버렸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서의 본문을 지지한다. 누가가 장로들과 벗들이 예수께 온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pronouncement)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문학적 양식이라고 한다.⁸⁾ 그에 의하면 누가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 중요성은 누가의 강조(οὐδὲ ἐν τῷ Ἰσραὴλ ἰσοστυρνὴν πῦτιν εὐρον)에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전달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신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Fitzmyer의 견해는 볼트만과 같이 철저하게 두 문서설(two document theory)에 근거해 있다. 두 문서설은 공관복음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Q자료는 그 존재와 성격마저도 불확실하며 문서도 없다. 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서로

5) R. Bultmann, *op. cit.*, p. 46.

6)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9), p. 648.

7) *Ibid.*, p. 649.

8) J.A. Fitzmyer, *op. cit.*, p. 650.

다르다.⁹⁾ 우리는 밝혀지지 않은 자료(Q)에 의존한 두 문서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¹⁰⁾ 그러므로 두 문서설에 입각해서 논증을 이끌어간 Fitzmyer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는 마태 8:11, 12절에 대해서 마태가 본래 이 문맥 가운데 없었던 것을 이차적으로 삽입해 넣은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Bultmann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또 그는 Bultmann이 이 기사를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와 연결시킨 것을 비판하고 요한 복음의 기사(요 4:46:53)와 관련시킨다. 그러나 그는 Bultmann과 같이 누가가 본래의 자료에 자신의 판단과 의도에 따라 장로들과 벗들이 예수께 온 것으로 개작해서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즉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벗들을 보낸 것처럼 꾸며 넣었다는 얘기가 된다.

2) 두번째 유형: 벗들이 왔다.

본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벗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Leon Morris, R.H. Gundry, R.T. France 등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본래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냈으나 마태복음의 기자가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위해서 그 사실을 생략했다고 주장한다.

Leon Morris는 마태와 누가의 본문이 안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본래의 기사를 단축시켰으며 그의 목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생략했다고 본다.¹¹⁾ 어떤 사람이 자기의 대리인(agent)을 통해서 한 일은 본인 자신이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rris는 누가가 이 사실을 실제로 일어난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백부장의 대리인들을 다루는데서 두 복음서 기자들이 가졌던 상이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는 우선적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국적(nationality)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그에게 대리인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백부장의 성격, 특별히 그의 겸손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이 기사에서 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Morris는 마태가 본래의 기사를 단축시켜서, 실제로 예수께 왔던 장로들과 벗들을 생략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을 잘못된 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9) Everett F.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총론, 정성구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2), p. 154.

10) 공관복음서의 문제와 두 문서설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종윤, "공관복음문제 재론(II)", *聖經과 神學*, vol.2(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84), pp. 43-76, 참조

11)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Michigan; Eerdmans, 1974) p. 137.

12) *Ibid.*

R.T. France는 오히려 그것을 이 기사의 중심적인 주제인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양식이라고 말한다.¹³⁾ 마태복음서의 기자가 생략한 것은 실제로 이 본문의 이적이나 중심적인 대화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orris나 France의 이러한 견해는 두 본문을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는 Bultmann이나 Fitzmyer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Morris는 각 복음서의 기자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구성된 인간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Morris가 말한대로 과연 복음서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본래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일 이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Morris의 견해는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Gundry의 경우에는 Morris와는 달리 이 기사에서 백부장의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¹⁴⁾ 그에 따르면 마태는 백부장을 이방인 기독교인의 원형(prototypical)으로서 강조하려는 이유때문에 장로들이 온 것을 생략했으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친구들이 온 것도 생략되었다고 본다.¹⁵⁾

3) 세번째 유형 : 둘 다 왔다.

백부장의 벗들이 먼저 왔고 그 뒤에 백부장도 예수께 직접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Norval Geldenhuys이다.¹⁶⁾ 그는 Loisy Wendland, 그리고 Klostermann이 마태의 본문이 본래의 것이고 누가가 아이로의 기사에 영향을 받아서 그 본문을 길게 늘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 복음서는 그 어떤 것이건 본래 일어났던 사실 이외의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¹⁷⁾ 마태는 대략적으로 기록해서 백부장이 예수께 온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누가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백부장이 장로들과 벗들을 보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후에 백부장 자신이 예수께 왔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Geldenhuys는 백부장이 먼저 벗들을 예수께 보낸 후에 긴박한 사정과 또 직접 예수께 가야겠다는 내적인 충동 때문에 그 자신도 예수께 간것이라고 말한다.¹⁸⁾ 그에 따르면 누가는 백

13) R.T. France, "Exegesis in practice: Two Sample",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 Howard Marshall, ed. (Michigan; Eerdmans, 1983), p. 254.

14) Robert H. Gundry, *Matthew*, (Michigan; Eerdmans, 1982), pp. 141~147

15) *Ibid.*, p. 141.

16) Norval Geldenhuys, *The Gospel of Luke*, (Nict Michigan; Eerdmans, 1979), pp. 220~221.

17) *Ibid.*, p. 221.

18) *Ibid.*, p. 220.

부장이 벗들을 보낸 것을 강조한 반면에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께 간 것만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복음서는 서로 보완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Geldenhuys는 어떻게 하든지 두 본문의 차이점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타당하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설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의 기록을 보완하려고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복음서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태복음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서두에서 부터 백부장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저 대략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누가는 누가대로 백부장의 대리인들이 역할을 극대화시켜 놓았다. 따라서 두 기자가 이런 식으로 서로의 본문을 조화시키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가지가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더우기 Geldenhuys는 마태복음서 기자가 백부장의 대리인들을, 누가는 백부장이 온 것을 무슨 이유때문에 제외시켰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가지 종류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적어도 첫번째 견해를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남은 것은 두번째, 세번째의 견해이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견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주석해 보아야 한다. 두 본문을 다룰 때 따로 떼어서 다루기 보다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대비시켜가면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서로의 차이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이야말로 각 본문이 가진 특이한 점이다. 따라서 두 본문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2. 본문 주석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것이 언급되지만 그것은 속격독립구문(Ἐπισελθουτος δε αὐτοῦ εἰς Καφαρναουμ ...)으로 나타난다. 5절과 6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있고 백부장(ἐχαρουνταρχος)이 주어로 등장한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은 그의 종과 관련해서 속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백부장보다도 종에게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고 있으나 이것도 동사로서만 언급된다(ἀπεστειλεν). 이로 보건대 마태의 본문에서는 초두부터 백부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백부장은 로마편제에 따라서 구성된 해롯 안티파스(Herod Antipas)

의 군대의 일원이었다.¹⁹⁾ 본문에는 그의 국적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마 8:10, 눅 7:5,9). 마태는 11,12절과 관련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날카로운 대조를 위해서 초두부터 이방인인 백부장을 직접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먼저 유대인장로들을 등장시키고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과 회당을 지어준 사실을 말하게 된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6절 후반부와 7절의 백부장의 말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즉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예수의 은혜를 입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가치조차 없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는 초두부터 백부장의 겸손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병든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다. 마태가 ο'παις로 말했을 뿐 나머지 경우에 δουλος (.2,10)로 표현하고 있다. παις는 “어린이”(child), “종”(servant)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가 명백하게 종을 의미하는 δουλος와 함께 παις를 사용했으므로 여기서 παις의 의미는 “종”이다. 그러나 Bultmann은 마태복음의 παις는 어린이로 이해해야 하며 누가복음의 δουλος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그러나 이것은 근거없는 말이다. 신약성경에서 παις는 24번 사용되었지만 “아이”, “아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단 한 번 뿐이다(요 4:51).²¹⁾ 마태복음서에서도 이 본문이외에 6곳에서 사용되었지만 “아들”, “아이”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²²⁾ 그러므로 마태의 παις는 누가복음의 δουλος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태의 본문에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와하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ν .7... ἐγώ ἐλθων θεραπεύσω αυτου. 이것은 누가복음서에는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장이 서술문과 의문문으로 함께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어떤 형태로 번역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기꺼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라고 한다.²³⁾ 그러나 헬라어 사본에는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문

19) 참조, R.H. Gundry, *op. cit.*, p. 141., I. Howard Marshall, *op. cit.*, p. 279.

20) R. Bultmann, *op. cit.*, p. 46.

21) W.F. Moulton & A.S. Geden, *A Concordance to the Greek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53), p. 747.

22) P.T. France, *op. cit.*, p. 256. 참조

23) W.F. Albright & C.S. Mann, *Matthew*, (New York; Doubleday & Co., 1971), p. 93., W.C. Alle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Ltd., 1977), p. 77.

제가 일어난다. 때로 이것은 주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술문으로, 혹은 의문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우리는 여기서 전체 문맥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ἔγω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ἔγω는 주어인 행위자 자신을 강조할 때만 사용된다. 이렇게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보고 행위자를 강조할 때, 7절은 “바로 ‘나’ 자신이 가서 그를 치료해 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R.T. France는 서술문으로 해석해서는 어색하다고 본다. 의문문으로 보아야만 ἔγω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며 전체 문맥이 매끄러워진다고 말한다.²⁵⁾ 그는 이 문장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와 연결시켜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치료에 일차적으로 거부감을 가지셨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의문문의 형태로 이방인의 집에 가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의 입장은 Bultmann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한 것은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의 인종차별주의(racialism)와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NEB²⁶⁾를 제외하고는 WH,²⁷⁾ Nes²⁸⁾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번역문이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나타내고 있다.²⁹⁾ 이 문장에서 ‘간다’는 말은 주격분사형태(ἐλθων)이며 주동사는 ‘치료할 것이다’(θεραπεύσω)라는 말이다. 이것으로 볼때 ἔγω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치료하시겠다는 것으로, 치유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³⁰⁾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간절히(σπουδαιως) 구한 후에(πα

24) Bultmann과 R.T. France는 의문문으로 본다. 반면에 F.W. Beare, R.H. Gundry, David Hill등은 의문문으로 보는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서술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R.T. France, *op. cit.*, p. 257.

26) *The New English Bible, New Testament* (1961).

27) Westcott and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1881).

28)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5th ed., 1963).

29) Kurt Ala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75), p. 25.

30) Francis wright Bear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Oxford; Basil Blackwell, 1981), p. 207. 참조.

ρεκαλουν, 미완료 형태에 주목하라)³¹⁾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셨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백부장의 벗들이 등장한다. 백부장은 이 벗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οὐ γὰρ ἴκανος εἰμι ἵνα ὑπο τῆν στεγγὴν μου εἰσελθῆς. (6절 하반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한글 개역성경). 이것은 마태복음의 평행귀절과 용어까지 거의 일치한다; οὐκ εἰμι ἴκανος ἵνα μου ὑπο τὴν στεγγὴν εἰσελθῆς (v.8). 이 말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백부장이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일 자격마저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분명히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ἴκανος 라는 단어와, 마태와 누가복음서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ἄλλα μόνον εἶπε λόγῳ, καὶ ἰαθησεται ὁ παῖς μου.³²⁾ 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권능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

누가복음 본문의 7절 상반절은 마태복음서에는 없다. 그 귀절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διὸ οὐδὲ ἐμαυτὸν ἤξιωσα πρὸς σὲ ἔλθεῖν.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즉 διὸ, ἀξιῶ, ἐρχομαι πρὸς 등은 주로 누가가가 즐겨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³³⁾ 누가복음서에서 이 문장은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의 벗들을 보내게된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

31) παρακαλεω의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동작의 계속을 의미한다. 즉 장로들이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백부장을 도와주기 싫어하셨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장로들이 그들의 청을 집요하게 계속했다는 뜻일 뿐이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돕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I. Howard Marshall, *op. cit.*, p. 280.을 참조하라.

32) 이것은 마태의 본문이다. 누가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ἄλλα εἶπε λόγῳ, καὶ ἰαθητῶ ὁ παῖς μου. 여기서 눈에 띄는 차이는 ἰαθησεται와 ἰαθητῶ이다. 누가 복음서에서도 이것은 어떤 사본(p⁷⁵, B.L. 1241등)에서는 ἰαθητῶ로, 어떤 사본(χ ADC등)에서는 ἰαθησεται로 되어 있다. 더 좋은 것은 ἰαθητῶ라고 하나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다. Joseph A. Fitzmyer, *op. cit.*, p. 652 참조.

33) I. Howard Marshall, *op. cit.*, p. 281. 참조

것은 백부장의 지극히 겸손한 자기고백이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며, 또 위임받은 권위를 통해서 남에게 명령하여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께서도 명령만으로 종의 병을 치유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마태8:9와 누가7:8절의³⁴⁾ 중요한 점은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 점이다. 사실상 이 귀절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이하게 여기셨다 (ἐθαυμασεν). θαυμαζω는 가볍게 사용되지 않는 동사이다. 특히 이 동사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단지 두 번(눅 7:9, 막 6:6) 사용되었을 뿐이다.³⁵⁾ 여기서 예수께서 기이하게 여기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에서 ἄμην λεγω ὑμῖν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엄숙하며 강조적인 선언의 표식으로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양식이다. 당시의 어떤 유대인 랍비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표현 뒤에 따라오는 말을 주의깊게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의 선언은 마태복음의 본문의 촛점인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지고한 권위에 근거한 치유의 권능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이다.³⁶⁾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은 인종적인 장애를 극복하였다. 그는 전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백부장인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게된 큰 깨달음,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행11:18)는 깨달음을 미리 보여준다.³⁷⁾

마태의 본문과 누가의 본문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께 나왔는가의 문제만큼 심각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마태의 11,12절이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이다. Bultmann은 마태가 원래 독립된 11,12절의 주의 말씀을 부연하여 이 사회를 확대시켰다고 말하기까지 했다.³⁸⁾ 물론 이 귀절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누가는 이것을 다른 문맥에서 기록하고 있다. (눅13:28, 29). R.T. France와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이 귀절을 다른 문맥에서 말씀

34) 이 귀절에서는 두 본문이 놀랍게 일치하고 있다. 사용단어,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누가복음에 …ὑπο ἑξουσίαν 뒤에 τασσομενος 라는 분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일치는 두 본문의 다음 귀절까지 이어진다.

35) R.T. France, *op. cit.*, p. 259.

36) *Ibid.*

37) *Ibid.*, p. 260.

38) R. Bultmann, *op. cit.*, p. 46.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것을 본 기사에 첨가시켰다고 한다.³⁹⁾ 그러나 그는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방법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마태복음서 기자를 절대적 권한을 가진 편집자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 사실 복음서 기자에게 아무리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서 말솜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삽입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⁴⁰⁾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서 기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는 예수께서 무슨 이유때문에 이 말솜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솜(11, 12절)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첫째, 백부장은 그의 믿음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1절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πολλοι)은 12절의 οἱ υἱο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οἱ υἱο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는 나면서부터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물론 πολλοι 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ἀνακληθῆσονται). ἀνακληθῆσονται 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기대다”이나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다”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의자에 앉지

39) R.T. France, *op. cit.*, p. 260.

40) 이 본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전제는 예수께서 이 기사의 문맥속에서 이 말솜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럼 왜 누가는 이 귀절을 생략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누가 13: 28~29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가는 전체 본문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유대인장로들과 벗들을 보낸데서 우리는 이방인인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의 불신과 이방인의 믿음을 날카롭게 대조시킨 것과는 전혀 다르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고 또 누가의 본문은 예수님을 직접 본적이 없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 Leon Morris, *op. cit.*, p. 135. 누가 13: 28~29절의 말솜은 그 문맥에서 예수께서 독립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며 유대인에 대한 강한 공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솜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제외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않고 식탁 옆에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역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유대인의 일반적인 종말론적 아이디어를 취해서 잔치로 표현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 당시 종말론적 잔치에는 유대인들만 참석할 것이라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종차별주의를 깨뜨린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종적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백부장의 믿음과 관련하여 이방인들도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οἱ υἱο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은 바깥 어두운데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το σκοτος τὸ ἔξωτερον, ὁ κλαυθμος ὁ βρυγμος ὠν ὀδοντων⁴¹⁾ 등은 의심할 것 없이 지옥에 빠진 저주받은 자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버림 받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종상의 자손들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1,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선택된 민족은 더 이상 특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족이든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²⁾

이제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본문의 마지막 귀절에 도달했다. 여기서도 두 본문은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 마태는 ἔπειθε, ὡς ἐπιστευσας γεννηθῆτω σοι. (가라 네 믿음대로 될찌어다—한글개역성경)라는 예수님의 말솜을 기록함으로써 이 결론부분에서도 여전히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가는 이 말솜을 생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οἱ πεμφθεντες εὗρον τον δουλον υγιανοντα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로서 먼 거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야말로 권능의 존재임을 밝혀준 것이다.

이상으로 보건대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은 병의 치료 뿐 아니라 구원,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마태는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을 부각시켰다. 즉 믿음을 가진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백부장을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과 날카롭게

41) 이런 용어는 종말론적 문맥에서 마태가 즐겨 사용한 표현들이다. 참조, 마 22: 13, 24: 51, 25: 30.

42) R.T. France, *op. cit.*, p. 263.

43) *Ibid.*, p. 264.

대조시킨 것이다.

이와 반면에 누가는 전체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께 간절히 구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태도로 볼 때 예외적인 것이다. 유대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백부장은 예수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위엄과 권능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자각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humility)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 백부장이 왔는가? 그 벗들이 왔는가?

앞에서 우리는 두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매우 충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누구도 백부장과 그 벗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마태가 백부장이 온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백부장의 벗들이 온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또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에 각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도 알았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접근할 때 마태의 본문대로 백부장이 온 것도 사실이고 누가의 본문대로 백부장이 장로들과 벗들을 자기 대신 보낸 것도 사실이다. 두 기자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은 앞서서도 살펴본대로 두 기자가 각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두 기자가 다르게 말하면 말하는 만큼 각자의 목적과 의도에 그만큼 충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본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벗들을 보냈으나 마태만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백부장이 온 것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Morris, Gundry의 견해 보다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Geldenhuys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Geldenhuys는 마태는 백부장의 장로들과 벗들이 온 것을, 누가는 백부장 자신이 온 것을 각각 생략했다고 본다. 마태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생략했다면 누가도 역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Geldenhuys는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과 국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벗들을 보낸 사실을 생략하고 백부장만을 등장시킨 것이다. 누가는 백부장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을 생략하고 백부장이 장로들과 벗들을 보낸

사실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래 백부장과 그 벗들이 시찰을 두고 예수님께 같이 나왔으나 두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의 독특한 의도 때문에 각기 백부장과 그 벗들이 온 것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본문은 서로 보완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복음서 기자들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강조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연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생략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 마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여 이방인도 믿음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보편적인 것임을 말하려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다. 누가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겸손함을 강조하는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의 신적인 능력을 믿은 결과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백부장을 소개 함으로써, 예수님을 직접 본적이 없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다.⁴⁴⁾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사실을 신중하게 생략하고 기록한 것은 그들이 의도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타당한 문학적 양식이라고 답한다.⁴⁵⁾ 또 실제로 대리인을 통해서 한 일은 그 본인이 직접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마태의 생략은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⁴⁶⁾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단순히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면에서 복음서 기자들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을 했던 전도자들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당시의 세상을 향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공동의 자료를 가졌거나,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성경의 조명 아래 신학적 의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하여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⁴⁷⁾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대할 때 성경의 본 저자이신 성령께서

44) Leon Morris, *op. cit.*, p. 137.

45) R.T. France, *op. cit.*, p. 254.

46) 참조, R. Gundry, *op. cit.*, p. 141., L. Morris, *op. cit.* p. 137..

47) John Goldingay, "Expounding the New Testament"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d. I. H. Marshall, (Michigan: Eerdmans, 1983), p. 356.

복음서 기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형태로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감동시켰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이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도 서

Albright, W.F. & Mann, C.S., *Matthew*, New York: Doubleday & Co., 1971.

Allen, W.C., *The Gospel according to S.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51.

Beare, F.W.,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Oxford: Basil Blackwell, 1981.

Bultmann, R.,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허 혁역, 공관복음서 전승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3.

Fitzmyer, J.A., *The Gospel of Luk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9.

Geldenhuis, N.,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Michigan: Eerdmans, 1979.

Greener, H., *Synopsis of the First Three Gospel*,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81.

Gundry, R.H., *Matthew*, Michigan: Eerdmans, 1982.

Harrison, E.F.,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정 성구역, 신약총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2.

Hell, O., *The Gospel of Matthew*, London: Butler & Tanner Ltd, 1972.

Kümmer, W.G.,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tr. H.C. Kee, Nashville: Abingdon, 1981.

Marshall, I.H., *Commentary on Luke*, Michigan: Eerdmans, 1979.

_____,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Michigan: Eerdmans, 1983.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Michigan: Eerdmans, 1974.

Pulummer, A.,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Edinburgh: T & T. Clark.

Tasker, R.V.G., *Matthew*, London: Tyndale press, 1969.

김철손 외,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이종윤, "공관복음 문제 재론(II)", 성경과 신학 Vol. 2, 서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1984.

번 역

●교수번역

R. Gaffin,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황창기 / 225

●선배번역

O. P. Robertson, 성경신학의 전망

신득일 / 243

C. Trimp, 구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설교작성법

신득일 / 261